

이 달 의 초 점

'99 하반기 경기전망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정경제부〉

- 최근의 전자산업동향 및 '99년도 하반기 전망
〈본회 기획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정경제부>

I. 하반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4분기 성장률은 7%를 상회할 전망
- 5월중 산업생산이 21.8%를 기록(1~4월 : 13.7%)하여 GDP성장률이 1/4분기 4.6% 보다 높은 7%를 상회할 가능성이(상반기 전체 : 6%수준) 있다.
- 하반기에도 5~6%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연간 성장률은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경제활동 내용별 성장전망
 - 민간소비는 98년에 △9.6%에서 금년 1/4분기에 6.3%의 회복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6%수준의 상승세 지속이 예상된다.

	'98연간	'99 1/4	2/4	'99상	'99하	'99연간
경제성장률	△5.8	4.6	7내외	6내외	5~6	5~6

- 투자에 있어서는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큰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 건설투자는 98년중 건축허가면적 급감(△55.0%)효과가 이월되면서 하반기중에도 큰 회복에 한계가 있다.
- 설비투자는 통신·운수장비 등 정보화·물류 등을 중심으로 출하가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중 20%이상 증가세가 예상된다.
- 수출은 동남아시아 등 외환위기 국가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하반기중에도 15%내외의 물량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 물가

-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0.6% 상승에 그쳐 상반기별로는 30여년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상 최저를 기록

(전년동기비, %)

- * 60년대 이후 최저기록 : 87 상반기 1.6%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상승할 것이나 연간 2% 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상반기중 3.4% 하락한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하락세 지속 전망
- 생활물가도 2%대의 상승에 그쳐 서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가격이 5월까지 2.1% 상승(98년 △12.4%)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부분적인 투기요인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응필요

(3) 실업

- 실업자가 2월 178만명(실업률 8.7%)에서 5월 141만명(실업률 6.5%)으로 축소되어 월 12만명씩 축소
-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할 때 9

- ~10월경에는 실업률이 5%대 (실업자 120만명대)까지 하락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에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년 중반에는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축소 될 것이다.
- 98년중 △6.7% 감소한 도시 가계소득도 금년에 7%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

(4) 수출

- 상반기중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11%수준 증가하여 공장가동률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세계적 공급 과잉현상으로 인해 단기가 △12%내외 하락하여 금액기준으로 △1.1%감소
-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금액기준으로 8% 수준 증가가 예상된다.
- 수입은 상반기중 15.1%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중에는 30%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120억불 수준이 가능하여 연간 200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5) 재정수지

- 연간 5~6% 수준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세수증대 등으로 금년중 재정수지 적자는 예산편성시 GDP의 5%수준에서 4%수준으로 축소 예상

- 99년말 총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20%수준(92조원)이나 OECD 평균인 7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6) 외채

- 97년말 총외채가 1,581억불이었으나 작년에 100억불 수준이 감소하였고 금년 1~4월중 67억불이 감소(99.4월말 1,427억불)
- 금년중 총외채는 100~140억불 수준이 감소될 전망

하반기 경제전망 요약

(1) 전반적 경제상황이 더욱 호전될 전망이다.

- 성장회복세가 5~6%로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보다 많은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가능
- 물가는 2%수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200억불이 달성 가능하여 성장과 안정이 조화
-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감소되는 시점이 내년중반이 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 자금시장도 저물가·저금리 체제가 지속되어 기업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증시호황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뒷받침

(2)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 경기회복에 따라 국민 각 계층의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분담 의지가 약화될 우려
- 일부계층의 과소비 행태, 향락적 소비풍조 재연, 대형 고급아파트의 투기현상 등 사회문제도 예상

(3)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개혁을 완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성숙된 경제운영이 필요하다.

II.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본 방향....

-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 경제질서 구축
- (2) 경기회복세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
-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가. 금융구조개혁

- 제일·서울은행 및 부실생보사(7개사)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제일·서울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투자자와의 협상을 조속 마무리하고 있으며 대한생명 처리도 7월중 마무리, 나머지 생보사는 8~9월까지 매각할 예정이다.
-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 64조원 중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며 다만, 증자소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원중 12조원을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 전용 조치할 예정이다.

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시장경제형으로 개편하고 있다.

나. 기업구조개혁

-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 신용대출비중이 더욱 높아지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충신용한도(Credit line)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99.6월 현재 신용대출비중 : 33.7%)
- 대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변화가 예상된다.
(금년중(6.15현재) 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증감 : 중소기업 4.8조원증가, 대기업 1.7조원 감소)
-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
 -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하여 경영투명성 제고
 -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loan officer)제도를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관리에 있어서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
-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기관 활동에 대한 규제철폐, 중요감독기준의 법규정화 및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시장경제형으로 개편하고 있다.
-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
- 대우·현대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수정·반영(5.27)하고, 주채권은행별 구조조정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월별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따라서 6월 실직부터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본격 가동 할 계획이다.
-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5대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강력제재
-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
- 사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은 억제하며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규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련세제를 개선하고 있다.

- ▣ 기업개선작업은 경쟁력이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출자전환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희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
- ▣ 재벌의 제2금융권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신업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조정하고, 소속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엄격히 감독
-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립
- 작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이다.
- 하반기에는 학계, 업계, 금융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선위원회」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요 검토과제〉

-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주주의 기업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 사외이사의 비중 및 역할을 제고하여 이사회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선임의 공정성 확보방안

- 아울러 그동안 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 기업의 핵심 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개정 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 강화

2.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 저물가 저금리기조의 유지

- ▣ 저물가·저금리기조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중 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통화부담이 안되는 기업 자금 조달기반 확충
- 유상증자를 확충하여 기업의

	'98.1~5	'99.1~5
은행대출증가 (조원)	8.0	3.1
직접금융조달 (조원)	8.8	16.0

- 재무구조개선을 뒷받침한다.
-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99.5.4)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한다.
-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 (99.7), 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으로 중점육성 등 국채시장 활성화로 전체 채권시장 발전을 유도한다.
- ▣ 유통구조개선 및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영혁신 성과를 반영하여 조정하되, 조정시기를 분산한다.
- 복합화물터미널(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건설추진, 물류표준화 확대 등 물류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추진한다.

나. 적극적인 외환수급 조절 대책의 추진

- ▣ 외화의 적정수준 조달을 유도하고 외채상환, 해외투자 등 외환수요를 확대
- 공기업 등의 해외차입을 최대한 자제도록 하고 국내에서의 원화조달을 권고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외환수급사정과 해외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결정한다.

- 기업 및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해외투자전용펀드의 해외금융자산 구입을 촉진한다.
-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펀드 설립 등 해외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충한다.
- 외채 및 외국인주식투자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 * 당초 99년말 목표 550억불 이상, 6.15 현재 595억불
- 하반기중 외환수급 조절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평기금채권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외채수준 평가지표 개발등을 통해 외채수준 및 구성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체계 개선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담보 없이도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복잡다기한 지원제도를 전면 재점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접근이 쉽도록 개편한다.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차질없이 집행(6.28현재 4,054억원 지원결정)
- 소기업 창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가로 조성될 신용보증기금(2,000억원)을 적극 활용한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획기적인 조세감면조치와 병행하여 자금 지원 등 유인시책을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99.6말 → 99말), 중고설비 구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5%→10%),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한 연장 등 투자촉진

라. 수출 기반의 확충과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

- 환·이자율변동 보험 도입, 연불수출금융 지원확대, 1,000여개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개미군단으로 육성, 틈새시장 개척 등 수출기반 확충
-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을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애니메이션 등 신상품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 APEC 투자박람회 개최로 조

- 성된 대한 투자붐을 활용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 1억불 이상의 대형 투자건은 전담관을 지정, 조기성사 유도 한다.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봉급생활자에 대한 1.4조원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1.1조원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6.18)
- 조속한 시일내에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한다.

나.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 이번 중산·서민층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므로 「국민의 정부」가 향후 3년동안 지속적으로 확충·발전시켜 나갈 중장기 정책비전을 마련
-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8월까지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
- 선진국의 경험, 시민단체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IBRD

등 외국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생산적 복지체계」 정립을 위한 주요과제〉

① 빈곤층의 3대 기본생활(의식, 의료, 고교까지의 자녀교육)을 정부가 보장한다.

- 현행 「생활보호법」 체계로는 장기 실업자 상태에 있는 자활 보호자에 대한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현행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생계보호 및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활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자활 보호대상자라도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②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취업기회를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직업훈련·평생교육체제의 강화에 최우선을 둔다.

- 제조업에 치중된 현행 공공 직업훈련체제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 직업훈련기관과 민간 직업훈련기관간의 경

쟁체제를 적극 도입한다.

-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평생교육법」 제정)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확산한다.

③ 안정적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

- 종래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용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벤처 기업, 정보산업과 문화·관광 산업 등에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뒷받침 한다.

- 특히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은 중산·서민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전진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이중효과가 있다.

④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의 보완발전 및 2000년 1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한다.

⑤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한다.

-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 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특례법」을 제정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와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 재검토, 상속·증여세제 개선 등 세부담의 불공평 해소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 사회의 구축

□ 21세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찾기 위해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중

○ 추가적인 재원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인력개발·연구개발·정보인프라 등 기반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에 중점을 둔다.

○ 「신지식인」 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는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

정부

- 산업자본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합되도록 개선한다.
- 지식의 효율적 창출·유통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확충 및 내실화에 만전을 기한다.

<예시>

- 규제완화를 통하여 교육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학교교육을 창의성 위주로 전환
-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추진
-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와 전국민 정보화 교육 실시 등 「Cyber Korea 21」의 추진

- 17개 공기업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정보화책임관(CIO) 지정 추진
- 지식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98년 28개월)을 단축하고, 생명공학 등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조직으로 전환

- 오너중심의 소유자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지식경영 중심의 전문인 경영체제로 전환

개인

-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식자산 투자확대 및 지식경영의 확산을 꾀한다.
-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지식집약화 촉진한다.

- 평생고용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 을 강화한다.
-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으로 노사가 상호 신뢰속에 협력 하는 신노사문화를 정립한다.

<예시>

- R&D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확대
- 보수체계를 성과급체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조직과 문화 도 유연성에 바탕을 둔 수평

- 컴퓨터·언어능력 배양으로 지식흡수 능력 제고
- 근로자 스스로 창의적 사고 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자 기분야에서의 전문가인 신지 식인이 되도록 노력

최근의 전자산업 동향 및 '99년도 하반기 전망

본고는 우리 전자업계의 경영계획과 정부의
전자산업 발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본회 회원사 104개사
(전자전체 생산비중의 84%)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임(편집자)

I. 최근의 전자산업 동향

1. 개황

가. 수급 동향 <표1>

- 생산: 26조 7천 억 원으로 14.3% 증가
- 수출증가 및 내수안정으로 점차 회복세
- 수입: 118억불로 33.6% 증가
- 소비, 설비투자, 제조업 가동율 등 내수경기 회복에 따라 큰폭 증가
- 수출: 187억불로 17.8% 증가
- 동남아지역의 외환안정, 미국의 경기호조 지속, 일본의 경기 회복세 등으로 큰폭 증가
- 시판: 3조8천억원으로 19.7% 증가
- 민간소비 및 기업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큰폭 증가

나. 월별 경기동향 <표2>

- 5월 까지 수출, 시판, 생산, 수입이 각각 17.8%, 19.7%(4월), 14.3%(4월), 33.6%의 증가를 보여 모든 부문이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2. 수출 동향 (5월까지)

가. 부문별 <표3>

- 가정용기기: 1.9% 감소

- 주시장인 러시아, 동구, 중동지역의 시장 위축이 주요인

- 산업용기기: 26.5% 증가
- PC, 프린터, 모니터 등의 수출 호조로 회복세 진입
- 휴대용전화기의 미국, 중국 수요증가와 교환기 등의 회복세로 큰폭 증가

- 전자부품: 42.3% 증가
- LCD, CPT, PCB 등 주력품목의 중국, 일본 등으로 큰폭 증가

- 반도체: 10.7% 증가

<표1> 수급 동향

(단위: %)

구 분	단위	'98년	5월(누계)			
			증감률	'98년	'99년	증감률
생산	십억원	65,185	15.9	* 23,316	* 26,655	14.3
수입	백만불	22,375	△24.2	8,894	11,884	33.6
수출	백만불	38,669	△6.7	15,884	18,716	17.8
시판	십억원	10,423	△10.7	* 3,189	* 3,817	19.7

주) 1. 생산: '98년 불변가격 기준
2. * 표시(생산, 시판)은 4월 누계임

자료 : EIAK, KOTIS

<표2> 월별 수급 증가율

(단위: %)

구 분	'99. 1	'99. 2	'99. 3	'99. 4	'99. 5	계
수 출	17.6	8.0	25.0	20.3	24.3	17.8
시 판	16.8	15.0	36.0	12.0	-	* 19.7
생 산	15.5	10.1	13.8	15.6	-	* 14.3
수 입	44.5	21.6	30.6	32.7	39.2	33.6

주) *표시는 4월 누계임

자료 : EIAK, KOTIS

<표3> 부문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98년		'99. 5월(누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전자산업	38,669	△6.7	18,716	17.8
기정용기기	5,438	△17.8	2,531	△1.9
산업용기기	9,201	△4.7	4,718	26.5
일반부품	7,021	△9.3	3,900	42.3
반도체	17,010	△2.4	7,567	10.7

자료 : EIAK, KOTIS

- 주력품목인 64M DRAM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생산물량이 가격하락 속도이상으로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

나. 품목별 <표4>

- 호조품목: 반도체(10.7%), LCD(400.6%), PC(452.2%), CDT(43.3%), 휴대폰(144.4%) 등으로 이는 대부분 고부가 가치의 신개발품
- 부진품목: 칼라TV(△25.2%), 오디오(△3.1%)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자기테이프(△21.6%), HDD(-13.7%),

MWO(-8.5%)등은 시장침체와 경쟁심화 등으로 부진

다. 지역별

○ 호조 지역 <표5>

- 미국

- 휴대폰, 컴퓨터, LCD를 중심으로 18.4% 증가
- 흑자재정과 3년 연속 3.9% 대의 경제성장률로 연말까지 호조지속 예상

- 일본

- 컴퓨터, LCD, CTV, VCR 등을 중심으로 32.3% 증가
- '98 무역흑자(1,185억불)와 경기부양의 효과 가시화로 큰 폭 증가

- 중국

- 휴대폰, 컴퓨터, CPT, TV류

<표4>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백만불, %)

구 分	'98년		5월 (누계)			
	금액	증감률	'98년	'99년	증감률	
가전 제품	CTV	993	△31.4	517	387	△25.2
	VCR	530	△27.9	218	231	6.3
	오디오	1,161	△22.1	512	496	△3.1
	전자렌지	694	0.4	323	295	△8.5
	냉장고	542	△7.5	271	265	△2.3
산전 제품	PC	335	63.8	107	594	452.2
	모니터	2,348	△24.4	965	1,057	9.5
	HDD	690	35.8	307	265	△13.7
	휴대폰	1,420	67.5	516	1,262	144.4
전자 부품	자기테이프	639	△25.7	285	223	△21.6
	LCD	1,075	53.1	263	1,316	400.6
	CDT	1,149	10.8	425	610	43.3
	반도체	17,010	△2.4	6,835	7,566	10.7

자료 : EIAK, KOTIS

<표5> 수출 호조지역

(단위: 백만불, %)

구 분	'98년		'99. 5월 (누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미 국	10,353	△4.2	5,163	18.4
일 본	2,142	△20.9	1,708	32.3
중 국	1,338	△8.7	782	57.2
아시아	7,101	△6.9	8,637	28.8
E U	6,918	0.1	3,062	7.2
중남미	1,725	△17.0	879	12.3

자료 : EIAK, KOTIS

<표6> 수출 부진지역

(단위: 백만불, %)

구 분	'98년		'99. 5월 (누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러시아	201	△62.3	34	△75.3
동유럽	486	△40.6	148	△34.8
중 동	1,338	△8.7	397	△7.9

자료 : EIAK, KOTIS

너, 반도체를 중심으로 57.2%의 높은 증가

- 공공투자확대, 1/4분기 높은 경제성장(8.3%) 및 소비증가(7.4%)로 호조

- 아시아

- 휴대폰, 음극선관, 반도체, CTV를 중심으로 28.8% 증가
- 태국, 말련, 인니, 필리핀 등 주요국 경제 회복기 진입으로 큰폭 증가

- EU

- GSM 방식의 휴대폰 수요 증가와 노트북 PC 채용에 따른 LCD 물량 확대로 7.2% 증가

- 중남미

- CDMA 채택 확대로 휴대폰 수출하여 12.3% 증가

○ 부진 지역 <표6>

- 러시아

- 전화기, V/TAPE, CTV, 냉장고, 세탁기를 중심으로 75.3% 감소
- 외환위기로 인한 극도의 경기위축 및 수요 침체에 기인

- 동유럽

- CTV, VCR, MWO, 세탁기, 냉장고를 중심으로 34.8% 감소
- 러시아의 위축과 동유럽 각국의 무역적자 심화, 외환유동성 부족이 주요인

- 중동

- C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중심으로 7.9% 감소
-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비 및 프로젝트사업 위축

3. 수입 동향 (표7)

- 증가품목: 휴대폰(514.5%), 컴퓨터주변기기(113.9%), LCD(165.0%), PCB(71.7%) 등
- 휴대용전화기: 내수경기 회복과 서비스사업자의 단말기 물량확대로 514.5%의 높은 증가
- 컴퓨터주변기기: 수입선다변화 해제후 FDD의 수입급증, 대만에서의 저가모니터 수입 증가, HDD 및 프린터의 수입 지속으로 113.9%의 증가
- PCB: 휴대폰, 노트북 PC 등의 수요확대로 MLB, 연성 PCB 등 고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71.7%의 증가
- LCD: 노트북 PC의 화면 대형화, 모니터의 LCD 채용 확대 등 수요증가로 165.0% 증가

4. 내수동향 <표8>

○ 가정용기기

- 가전제품 보급율 포화상태에서도 내수경기 회복으로 점차 회복세
- CTV, VCR, MWO 등의 대체 수요 증가

○ 산업용기기

- 휴대용전화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요증대로 전년대비 25.1% 증가

○ 반도체

- 컴퓨터 경기 호조와 이동통신

<표7> 수입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98년		'99. 5월(누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전자산업	22,375	△24.2	11,884	33.6
기정용	876	△47.7	449	19.9
CTV	10	△77.1	6	3.6
VCR	17	△68.6	6	△50.8
컴포넌트	71	△53.6	43	77.6
냉장고	27	△58.1	12	37.1
산업용	5,410	△46.4	2,972	38.9
휴대용전화기	42	△68.1	84	514.5
HDD	278	△41.6	254	187.4
프린터	117	△64.6	91	63.4
전자부품	16,089	△9.3	8,463	32.7
반도체	12,246	△5.0	6,325	32.0
LCD	183	97.1	147	165.0
PCB	356	22.7	205	71.7
축전지	335	△4.5	221	70.6
자기헤드	370	0.2	168	4.8

자료 : EIAK, KOTIS

<표8> 내수동향

(단위: 억원, %)

구 분	'98년		'99. 4월(누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전자산업	104,225	△10.7	38,169	19.7
기정용기기	25,498	△29.7	8,639	△0.5
산업용기기	54,450	△2.0	20,146	25.1
일반부품	17,549	△1.7	6,888	43.1
반도체	6,728	△3.9	2,496	8.5

자료 : EIAK

기기 판매 호조에 따른 수요증
가로 8.5% 증가

○ 일반부품

- 가전제품 등 세트기기 수요증
가로 43.1%의 높은 증가

II. '99 하반기 경기전망

1. 하반기 경기 예전

○ 부정적인 면

- 원화강세, 엔화약세
-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 D램 가격 하락 추세
-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
- 중남미, 러시아 경제 침체 지속
- 보호무역주의 강화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 긍정적인 면

- 세계경제 호조
- 미국 경기호조 지속
- 아시아 경제상황 개선
- 국내 경기(소비, 투자) 회복세
- 국내금리·임금·물가 안정세
-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
- 정보화 사회 확산

2. 국내외 경제 전망

○ 금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는 아시아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표9>

○ 국내 경제는 금리 및 임금의 하향 안정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진작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표10>

<표9>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96년	'97년	'98년			'99년		
			IMF	WEFA	OECD	IMF	WEFA	OECD
전세계	4.3	4.2	2.2	1.8	2.0	2.2	1.7	2.2
미국	3.4	3.9	3.9	3.9	3.9	1.8	2.4	3.6
일본	5.0	1.4	△2.8	△2.8	△2.8	△0.5	△1.3	△0.9
E U	1.8	2.7	2.9	2.9	2.9	2.2	2.1	1.9
아시아 신흥공업국	6.3	6.0	△2.6	△4.1	-	0.5	1.1	-

- 주 : 1998년 수치중 미국, 일본, EU의 경우는 확정치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1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First Quarter 1998

단, 미국, 일본은 Industrialized Countries Monthly Monitor 1998. 11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 5

<표10>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97년	'98년	'99년			
			IMF	KIET	LG경제(연)	대우경제(연)
GDP	5.0	△5.8	4.5	5.7	4.0	5.2
민간소비	3.5	△9.6	2.5	6.6	4.2	6.8
설비투자	△8.7	△38.5	-	12.6	2.4	11.3
수출	5.0	△2.8	6.0	1.3	0.5	9.5
수입	△3.8	△35.5	12.0	17.9	17.8	25.1
소비자물가	-	7.8	-	1.2	2.2	1.6
실업률	2.6	6.8	7.6	-	7.8	7.5

자료 : OECD, 1999. 5

KIET, 1999. 6

LG경제연구원, 1999. 4. 16

대우경제연구원, 1999. 5. 27

3. 조사결과

<표11> 생산총괄

구 분	'99하반기		'99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크게 호전(15%이상)	59	56	56	54
대체로 호전(6~14%)	12	12	17	16
변화없음(5~ -5%)	25	24	23	22
대체로 악화(-6~-14%)	4	4	2	2
크게 악화(-15%이상)	4	4	6	6
합계	104	100	104	100

○ 총괄 <표11>

- '99년의 전자산업 생산은 상반

■ 가정용기기 <표11-1>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8	50	7	44
변화없음(5~-5%)	6	38	8	50
악화(-6%이상)	2	12	1	6
합계	16	100	16	100

가치 제품의 수출주도 등에 힘
입어 전년보다 크게 호전
(62%)될 전망

-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
출 채산성 악화는 수출업계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대두

■ 산업용기기 <표11-2>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22	74	23	77
변화없음(5~-5%)	4	13	3	10
악화(-6%이상)	4	13	4	13
합계	30	100	30	100

4. 내 수 <표13>

○ 총 팔

- 내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성장
이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크게
호전(70%)될 전망
- 내수 증가 요인으로는 경기회
복(67%), 신제품 개발(20%)등
의 순이며

- 그러나 물류비등 과다한 부대
비용(19%), 거래처 부도 등에
따른 판매망 축소(11%) 등은
내수 판매상의 애로 요인으로
나타남

■ 전자부품 <표11-3>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41	71	43	74
변화없음(5~-5%)	15	26	12	21
악화(-6%이상)	2	3	3	5
합계	58	100	58	100

기여 이어 하반기에도 호전
(68%)되어 연간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크게 호전(70%)될
전망

- 증가요인으로는 수출증가가
가장 많고(50%), 내수증가
(27%), 신제품 개발 등 품질
고급화(8%), 신시장개척 활동
강화(4%) 순.
- 그러나 생산현장의 애로요인
이 존재하여 원자재 가격상승
에 따른 생산비 부담(28%),
환율불안(18%), 자금조달 애
로(10%) 등의 순.

나. 수 출

4. 수급 전망 <표14>

가. 총 팔

- 총 팔 (표12)
- 해외시장 수요 증가와 고부가

○ 수출

<표12> 수출총팔

구 分	'99하반기		'99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크게 호전(15%이상)	51	49	44	42
대체로 호전(6~14%)	20	19	21	20
변화없음(5~-5%)	28	27	35	34
대체로 악화(-6~-14%)	2	2	1	1
크게 악화(-15%이상)	2	3	3	3
합계	104	100	104	100

■ 가정용기기 <표12-1>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12	75	10	63
변화없음(5~ -5%)	3	19	6	37
악화(-6%이상)	1	6	0	0
합계	16	100	16	100

■ 산업용기기 <표12-2>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19	63	18	60
변화없음(5~ -5%)	9	30	10	33
악화(-6%이상)	2	7	2	3
합계	30	100	30	100

■ 전자부품 <표12-3>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40	69	37	64
변화없음(5~ -5%)	16	28	19	33
악화(-6%이상)	2	3	2	3
합계	58	100	58	100

<표13> 내수총괄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크게 호전(15%이상)	58	56	53	51
대체로 호전(6~14%)	15	14	17	16
변화없음(5~ -5%)	28	27	26	25
대체로 악화(-6~ -14%)	1	1	5	5
크게 악화(-15%이상)	2	2	3	3
합계	104	100	104	100

■ 가정용기기 <표13-1>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12	75	8	50
변화없음(5~ -5%)	3	19	4	25
악화(-6%이상)	1	6	4	25
합계	16	100	16	100

기업의 수출확대 전략, 미국 경기 호조 지속, 일본 및 아시아 시장의 경기안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지속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 전망

○ 시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및 투자회복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 전망

○ 생산

금리 및 임금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수출 및 내수 증가로 전년대비 14.8% 증가 전망

○ 수입

국내경기회복, 수출증가, 원화절상 및 시장개방(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등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 전망

니. 분야별 전망

○ 가정용기기

- 수출

해외 수요가 약간은 회복되고 있지만 동구, 러시아 및 중동의 경제 불황등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전망

- 시판

경기회복에 따라 침체되었던 구매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5.3% 증가 전망

■ 산업용기기 <표13-2>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23	77	22	73
변화없음(5~ -5%)	5	17	5	17
악화(-6%이상)	2	6	3	10
합계	30	100	30	100

■ 전자부품 <표13-3>

구 분	'99 하반기		'99 년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호전(6%이상)	38	66	40	69
변화없음(5~ -5%)	20	34	17	29
악화(-6%이상)	0	0	1	2
합계	58	100	58	100

<표14> 수급 전망

구 분	'99 상반기(추정)		'99년간(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출(백만불)	21,963	15.7	44,154	14.2
시판(10억원)	6,001	22.6	12,781	22.6
생산(10억원)	36,815	15.3	74,841	14.8
수입(백만불)	14,231	32.4	28,789	28.7

주) 생산은 '98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EIAK

가정용기기 수급 전망 <표14-1>

구 분	'99 상반기(추정)		'99년간(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출(백만불)	2,916	△3.6	5,350	△1.6
시판(10억원)	1,244	△3.8	2,685	5.3
생산(10억원)	5,349	△4.2	10,065	△0.9
수입(백만불)	525	17.2	1,009	15.2

자료 : EIAK

- 생산

수출 및 내수 회복지연속에 전년대비 0.9% 감소 전망

- 수입

경기회복에 따른 일부 제품의 수입증가와 수입선다변화제도해

제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2% 증가 전망

○ 산업용기기

- 수출

CDMA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 및 저가PC를 위주로 한 정보기기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18.0% 증가 전망

- 시판

인터넷 확산등 정보기기의 수요는 지속되고 이동전화기의 수요는 감퇴될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3.2% 증가 전망

- 생산

수출 및 내수의 호조속에 전년대비 27.5% 증가 전망

- 수입

내수 및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증가와 정보화에 따른 보조기억장치등의 수요 증가로 32.7% 증가 전망

○ 부품

- 수출

고부가가치제품(LCD, CDT등)의 수출주도로 전년대비 38.3% 증가 전망

- 시판

정보통신기기의 경기 호조속에 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37.1%증가 전망

- 생산

수출 및 내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5.5% 증가 전망

가정용 품목별 수급현황

(단위 : %)

품목별	생산		수출		시판	
	상반기	'99년간	상반기	'99년간	상반기	'99년간
C-TV	△4.2	△3.7	△23.2	△17.8	1.2	6.7
VCR	16.3	18.2	9.0	11.0	-1.7	4.3
음향기기	△1.0	2.7	△2.2	3.1	-5.3	4.2
냉장고	2.3	4.7	△2.1	△0.5	2.1	6.4
세탁기	△1.0	2.3	△4.2	△3.7	-2.8	2.6
전자렌지	△2.3	△2.7	△8.8	△9.2	1.3	3.7

자료 : EIAK

<표14-2> 산업용기기 수급 전망

구 분	'99 상반기(추정)		'99년간(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출(백만불)	5,560	19.4	10,857	18.0
시판(10억원)	3,480	34.7	6,980	23.2
생산(10억원)	11,280	22.7	22,262	27.5
수입(백만불)	3,623	42.1	7,179	32.7

자료 : EIAK

산업용 품목별 수급현황

(단위 : %)

품목별	생산		수출		시판	
	상반기	'99년간	상반기	'99년간	상반기	'99년간
PC	162.8	158.2	480.3	462.1	4.5	5.2
모니터	9.3	8.7	11.0	9.2	15.3	14.2
HDD	△9.7	△8.2	△12.1	△11.0	32.1	28.7
프린터	12.4	13.2	9.2	19.3	△11.3	△6.5
이동전화기	136.7	145.2	150.1	162.3	105.0	96.0
교환기	16.0	19.2	42.5	37.6	23.2	21.0
위성방송수신기	26.0	23.2	30.0	27.3	1.2	2.1

자료 : EIAK

<표14-3> 일반부품 수급 전망

구 분	'99 상반기(추정)		'99년간(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출(백만불)	4,571	38.9	9,708	38.3
시판(10억원)	926	35.9	2,404	37.1
생산(10억원)	7,339	23.2	16,027	25.5
수입(백만불)	7,610	29.6	4,853	26.3

자료 : EIAK

- 수입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에 따른 핵심부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6.3% 증가 전망

○ 반도체

- 수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요 증가와 제품의 세대교체에 따른 평균 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8.0% 증가 전망

- 시판

PC, 이동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6.0% 증가 전망

- 생산

정보통신기기의 수요증가속에 전년대비 9.8% 증가

- 수입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및 내수 증가속에 비메모리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8.6% 증가 전망

IV. 투자 전망

○ 전자산업의 투자는 경기회복 기대속에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크게 증가(67%)할 전망 <표15>

○ 설비투자 전망

- '99년 투자는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5조 7500억원이 전망되어 전년대비 12.5% 증

일반부품 품목별 수급현황

(단위: %)

품목별	생 산		수 출		시 판	
	상반기	'99년간	상반기	'99년간	상반기	'99년간
음극선관	6.7	8.4	25.0	28.0	14.2	△8.7
자기테이프	△7.3	△8.4	△21.6	△22.6	△27.3	△25.0
LCD	278.2	285.0	423.7	451.0	7.7	8.2
축전기	△4.2	△3.6	△11.0	△8.3	177.6	181.6
소형모터	18.4	20.2	14.2	15.3	35.2	37.2

자료 : EIAK

<표14-4> 반도체 수급 전망

구 분	'99 상반기(추정)		'99년간(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출(백만불)	8,906	11.3	18,239	7.2
시판(10억원)	351	5.8	712	6.0
생산(10억원)	12,846	11.7	26,485	9.8
수입(백만불)	2,473	31.9	15,748	28.6

자료 : EIAK

<표15> 투자전망

구 분	'99년	
	업체수	구성비(%)
크게 호전(15%이상)	45	43
증가(6~14%)	23	22
변화없음(5~-5%)	14	13
감소(-6~-14%)	16	16
크게 감소(-15%이상)	6	6
합계	104	100

<표17> 투자부문별 전망

투자부문	비중(%)
설비능력증가	51
R & D	24
유지보수	8
자동화	7
기타	10
계	100

<표 16> '99 설비투자 전망

(단위 : 억원, %)

구 分	'98		'99년 (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전자산업	51,190	△52.2	57,573	12.5
가 정 용	5,565	△38.4	5,245	△5.8
산 업 용	8,999	△65.7	10,232	13.7
전자부품	36,626	△63.0	42,096	14.9

자료 : EIAK

가 전망 <표16>

- 주요 투자부문으로는 설비능력 증가(51%), 연구개발(24%), 설비교체(8%), 공장 자동화(7%) 등으로 설비능력 증가와 연구개발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75%) <표17>

IV. 경영 전망

1. 자금 사정

- 자금사정은 상반기(40%)보다 하반기(47%)에 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 <표18>
-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내부 자금(48%), 일반 금융기관(25%), 정부지원 자금(17%) 등의 순.
- 자금조달시 애로요인으로는 금융비용과다(26%), 담보설정의 어려움(22%),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16%) 등의 순.

2. 경제회복 여부

<표19> 경제회복 여부

구 分	업체수	구성비(%)
회복되고 있다	84	81
회복되고 있지 않다	20	19
계	104	100

<표18> 자금사정

(단위 : 억원,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매우어려움	4	4	4	4
어려움	19	18	18	17
보통	40	38	33	32
좋은편임	36	35	37	36
매우좋음	5	5	12	11
합계	104	100	104	100

<표20> 채산성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크게호전(15%이상)	6	6	9	9
대체로 호전(6~14%)	37	36	47	45
변화없음(5~5%)	37	36	34	33
대체로 악화(-6~-14%)	24	22	14	13
합계	104	100	104	100

○ 전자업계가 보는 현재 경기 상황은 '회복되고 있다'가 81%로 대부분의 업체가 경기 회복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표19>

○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44%), 자금조달 곤란(29%), 수출부진(14%), 원·부자재 조달곤란(7%) 등으로 IMF 이후 더욱 심화되는 추세

3. 채 산 성

○ 전자업계의 채산성은 수출증가(45%), 내수증가(28%),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10%) 등으로 호전될 전망 <표20>